

#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9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8.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http://www.scdc.or.kr) · [www.seoulhealth.kr](http://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74명 추가 확진으로 총 8,236명, 서울시 어제 4명 추가 확진, 총 270명
-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국 외 지역이 중국을 뛰어넘어...확진자 증가 가속화
- 서울 경기 등 신규확진자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대구 첫 환자 한달만에 역전
- '구로 콜센터' 확진자 134명, 문대통령 "수도권 집단감염 시 모든 노력 원점...방역 강화해야"
- 안전한 개학 위해 최소 2~3주 더 필요, 유치원·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또 연기...대입일정은 더 검토
- 최악 위기 자영업-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논란...지원 대상·재원이 문제
- '복지 일선 코로나19 예방' 서울시,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5만8천매 지원

### 1. 발생 현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sup>4)</sup>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sup>1)</sup>	270	0	55	49,738	4,595	45,143	6,416	2,469	4,026
전 국 <sup>2)</sup>	8,320	81	1,401	278,396	17,291	261,105	-	-	-
전세계 <sup>3)</sup>	182,446	7,160	-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7. 0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7.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7.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4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270명

- 입원(격리)환자 215명, 격리해제 55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265명(미발표 5명)
- 3월 17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81명으로 치명률은 0.97%이며, 서울시는 사망자 없음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2020.3.17. 0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계	구로구 A 콜센터 관련	동대문구 ㄷ 교회 ㅅ PC방 관련	관악구 ㅍ 회사 관련	경기성남 ㅇ 교회 관련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력	조사중
3.17(화)	3	-	1	-	1	1	-	-
3.16(월)	13	3	2	1	3	1	2	1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3.17. 00시 기준)

(단위: 명)

소계	구로구 콜센터 관련	동대문관련 (교회,PC방)	동대문관련 (요양보호사)	해외접촉 관련	은평성모 병원관련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 방문	인천지 관련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기타
270	82	19	8	27	14	13	10	11	3	19	64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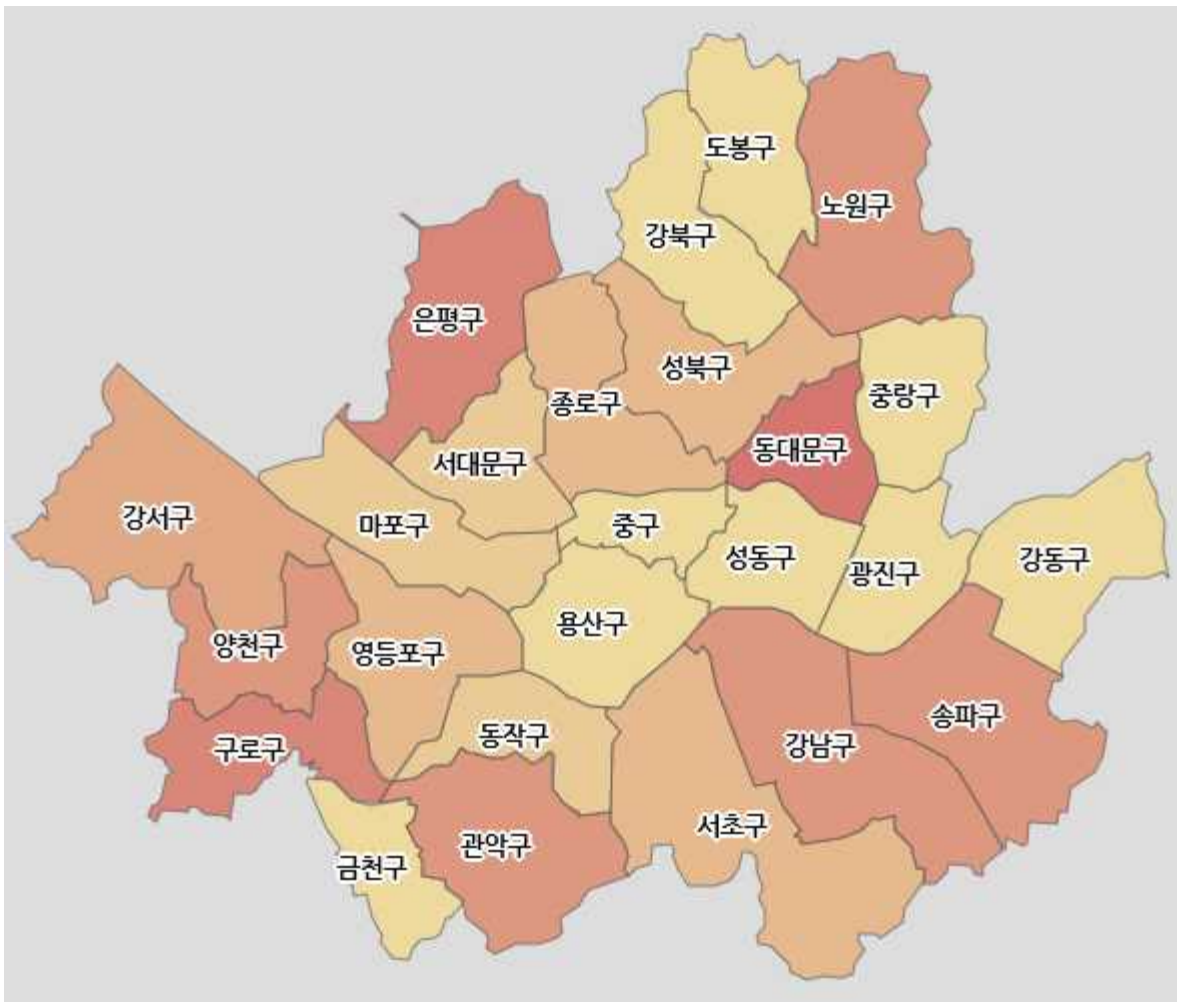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3월 18일 0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270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동대문24, 구로22, 은평18, 관악17, 송파16, 노원15, 강서15, 양천14, 강남14, 영등포13, 종로11, 성북9, 서초9, 마포8, 서대문8, 동작6, 중랑5, 강북5, 금천5, 강동5, 성동3, 용산3, 광진2, 도봉2, 중구1 순으로 발생함. 기타17(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1	1	3	3	2	24	5	9	5	2	15	18	8	8	14	15	22	5	13	7	17	9	14	16	5	17	270
3/17	-	-	-	-	-	1	-	-	-	-	-	-	-	-	-	-	-	-	-	-	-	-	-	1	-	1	3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서울시 병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역 거점병원	시립병원	민간병원 (상급병원)	생활치료 센터(3.16~)	감염병관리기 관(3.23~)	
병원수	25	4	6	4	10	1	-	
병상	가용	909	49	13	667	80	100	-
	사용	<b>246</b>	31 (서울17+타14)	12 (서울8+타4)	192 (서울171+타21)	4 (서울4)	7 (서울7)	-
	잔여	663	18	1	475	76	93	-

※ 국가지정격리병원(49): 국립중앙의료원33, 서울대9, 중앙대4, 한일병원3

※ 지역거점병원(13): 강남성심2, 고대구로2, 상계백3, 서울백1, 순천향대2, 삼육서울3

※ 민간병원(80): 신촌세브란스3, 삼성서울17, 건국대3, 서울성모12, 강남세브란스1, 서울아산6, 강북삼성6, 한양대18, 경희대12, 고대 안암2

※ 생활치료센터(1): 태릉선수촌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b>92</b>	<b>51</b>	39	<b>8<sup>1)</sup></b>	4	41	5	6	7	23

1) (감소 1개소) 중구 밀리오레 앞 상담소 3/15 운영 후 철수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b>47</b>	42	39	3	<b>5</b>

※ (보건소 내 3개소 운영) 동작구 (1개구 총 3개소)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종랑,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영등포, 서초, 강동구 (12개구 총 24개소)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광진, 도봉, 노원, 관악,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양천, 강서, 마포, 구로구 (12개구 총 12개소)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운영: 홍대, 서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 코로나19 상담소 운영: (2개소) 광진구, (1개소) 금천, 동작, 관악구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진료		검체 검사		X-ray		비고
3.15(일)	누계	3.15(일)	누계	3.15(일)	누계	
1,001	47,948	787	28,633	5	1,063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 분	진 료		검체 검사		X-ray	
	3.16.(월)	누 계	3.16.(월)	누 계	3.16.(월)	누 계
합 계	1654	50094	1017	30134	8	1071
종로구	33	1925	29	1580	0	0
중구	29	1196	16	409	0	24
용산구	75	1802	75	1606	0	1
성동구	34	1548	21	588	0	372
광진구	58	1879	28	706	0	125
동대문구	144	2496	120	1661	0	0
종랑구	14	977	14	956	0	0
성북구	40	1266	16	598	0	3
강북구	45	1382	34	475	0	16
도봉구	57	1629	12	498	8	209
노원구	11	908	11	617	0	0
은평구	142	3501	113	2760	0	17
서대문구	57	2,084	32	842	0	11
마포구	95	1884	39	1106	0	0
양천구	37	1,332	19	637	0	1
강서구	39	1655	39	1418	0	51
구로구	101	3513	63	2696	0	14
금천구	77	2191	31	1214	0	3
영등포구	68	952	49	724	0	0
동작구	111	2541	32	762	0	1
관악구	59	2642	30	1451	0	8
서초구	85	3,399	66	1526	0	138
강남구	89	3878	40	2995	0	73
송파구	32	1495	32	1096	0	0
강동구	122	2019	56	1213	0	4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6(월)	누계	3.16(월)	누계	
계	1,503	46,739	955	24,293	
국가지정	270	8,737	103	4,146	
지역거점	229	7,351	193	5,048	
국공립병원	172	3,312	157	2,457	
민간병원	832	27,339	502	12,642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7.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3.16(월)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254	212	1	2,903	2,384	2	
은평병원	25	21	-	441	412	-	3.3.개소
舊소방학교	36	27	1	573	381	1	3.3.개소
잠실주경기장	101	72	-	1,200	907	-	3.3.개소
이대서울병원	92	92	-	689	684	1	3.5.개소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양성건수: 검체 후 통보 되어온 양성반응자수로 검사일과 동일하지 않음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8,320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84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1,401명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81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97%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6%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4%임.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5,016명(60.3%)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7.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16.(월) 0시 기준	274,504	8,236	1,137	7,024	75	266,268	14,971	251,297
3.17.(화) 0시 기준	286,716	8,320	1,401	6,838	81	278,396	17,291	261,105
증감	12,212 (4.3%)	84 (1.0%)	264 (18.8%)	△186 (△2.7%)	6 (7.4%)	12,128 (4.4%)	2,320 (13.4%)	9,908 (3.8%)

- 새롭게 확진된 환자 84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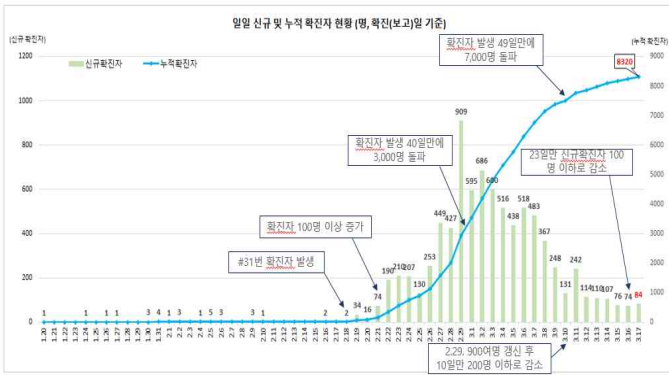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6,838	210	52	5,094	26	10	18	20	40	204	20	26	100	3	2	941	64	2	6
격리 해제	1,401	55	54	947	5	6	4	8	-	55	8	5	15	4	2	209	22	2	-
사망	81	-	1	57	-	-	-	-	-	3	1	-	-	-	-	19	-	-	-
합계	8,320	265	107	6,098	31	16	22	28	40	262	29	31	115	7	4	1,169	86	4	6
증감	84	12	-	32	1	-	-	-	1	31	-	-	-	-	-	5	1	-	2

\* 검역 추가(2020.3.16. 00시 기준) 국내입국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7.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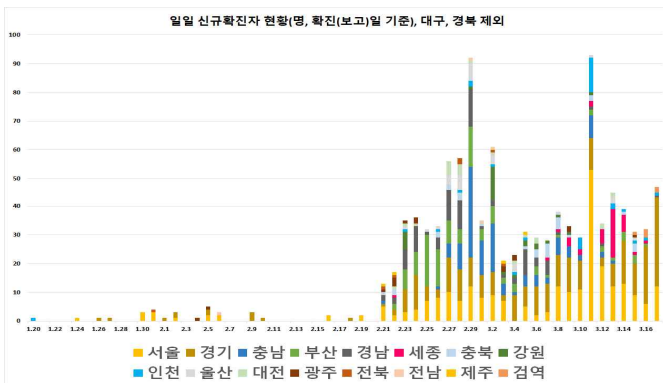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8,320명(전일 0시 기준 84명 추가)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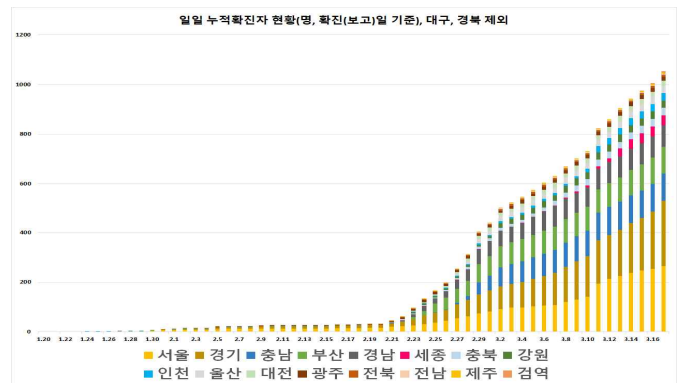
\* 신규 확진자수는 3.15. 이후 금일까지 두자릿 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감소추세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음.

(3.15. 76명 → 3.16. 74명 → 3.17. 84명)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확진자 현황 (2020.3.17.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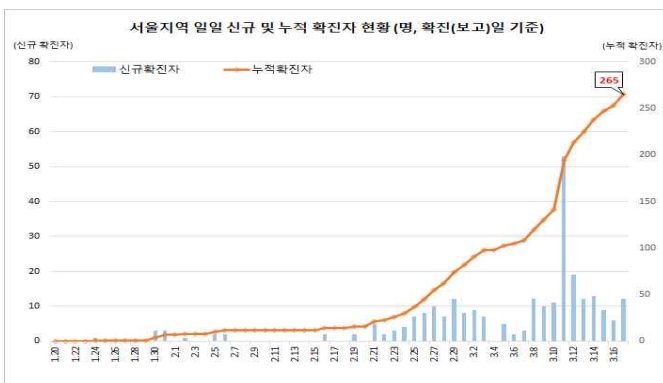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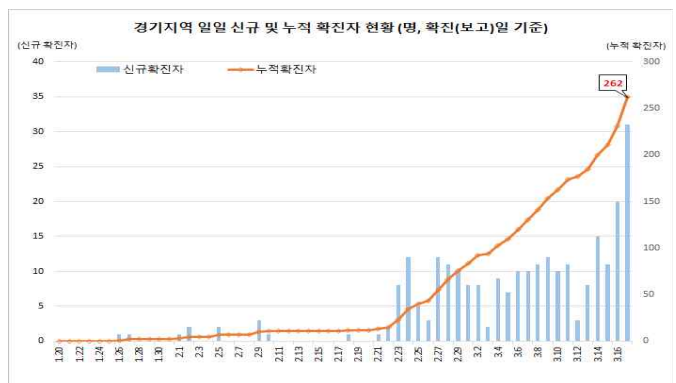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금일 신규 확진자 84명 중 44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와 37명이 추가 확진된 대구·경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함.
- \*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특성은 수도권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성남 은혜의 강 집단감염으로 경기지역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구로콜센터 및 요양시설 등 2-3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서울/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2020.3.17. 00:00 기준)



서울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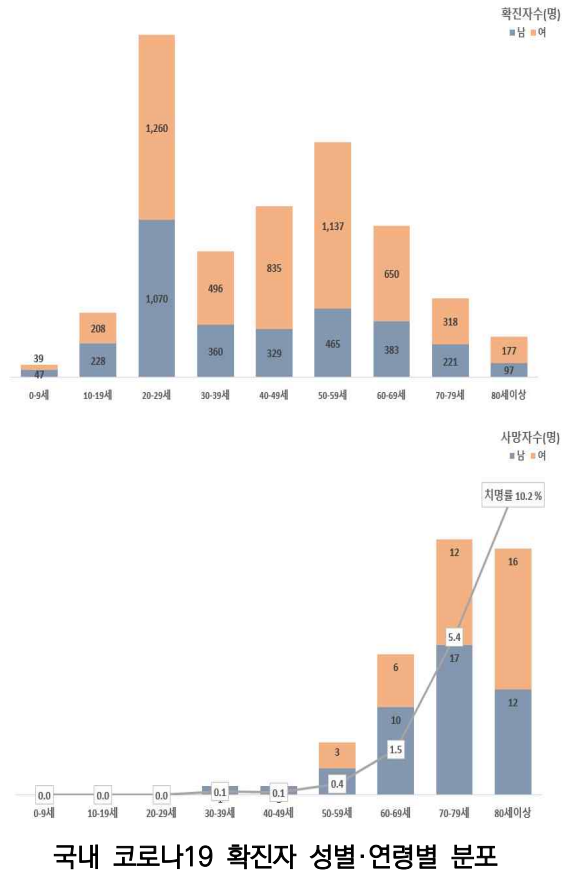
- \* 서울지역의 경우, 수도권 내 가장 큰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로 구로구콜센터에서 확진자 134명으로 확인됨 (전일 대비 5명 추가 확진; 서울 82명, 경기 33명, 인천 19명).
  - 콜센터 확진자에 의한 2-3차 감염(부천 생명수교회, 하나요양병원 등)의 우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동대문구 동안교회 관련 18명 확진자 발생하였으며(동안교회 10명, PC방 7명, 경희대 동료 1명), 가족 간 집단감염 9건은 시간적 선후관계 고려하여 별도 사례로 분류함.
- \*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수정구 양지동 소재) 신도 47명 확진 판정 보고되었으며, 구로구콜센터에 이어 수도권 내 집단감염으로는 2번째로 큰 규모로 확인됨 (경기 42명, 서울 3명, 인천 2명).
  - 3.9. 첫 번째 확진자(3.5. 증상일) 발생에 따른 접촉자 관리 중 3.15. 교회 목사 확진(3.8. 증상일), 교인 전원(135명) 자가격리 및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음.
  - 3.1, 3.8. 예배 시 신도 입과 손에 분무기를 이용한 소금물을 뿌리는 행위 등에 의하여 집단감염 발생으로 추정되며 확인 중에 있음.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7.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8,320 (100.0)	81 (100.0)	0.97
성별	남성 3,200 (38.5)	44 (54.3)	1.38
	여성 5,120 (61.5)	37 (45.7)	0.72
연령	80세 이상 274 (3.3)	28 (34.6)	10.22
	70-79 539 (6.5)	29 (35.8)	5.38
	60-69 1,033 (12.4)	16 (19.8)	1.55
	50-59 1,602 (19.3)	6 (7.4)	0.37
	40-49 1,164 (14.0)	1 (1.2)	0.09
	30-39 856 (10.3)	1 (1.2)	0.12
	20-29 2,330 (28.0)	0 (0.0)	-
	10-19 436 (5.2)	0 (0.0)	-
	0-9 86 (1.0)	0 (0.0)	-



\* 국내 확진자는 8,320명, 사망자는 81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97%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5,120명(61.5%)으로 남성 3,200명(38.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44명(54.3%)으로 여성 37명(45.7%)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3,200명의 확진자 중 44명이 숨진 남성에서 1.38%로 여성 0.72%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330명(28.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602명(19.3%), 40대 1,164명(14.0%), 60대 1,033명(12.4%)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73명(90.2%)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74명의 확진자 중 28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10.22%, 70대가 5.38%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전 세계 발생 현황

- 13,88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70,177명으로 보고됨.
- 이 중 6,990명(602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4.11%(전일 4.01%)로 확인됨.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전 세계	167,511	6,606	3.94	2.16
중국	81,077	3,218	3.97	5.64
중국 외 국가	<b>86,434</b>	3,388	3.92	1.37
서태평양	9,862	103	1.04	
유럽	45,074	1,739	3.86	
동남아시아	325	7	2.15	
중동	13,988	623	4.45	
아메리카	2,393	46	1.92	
아프리카	130	3	2.31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1	이탈리아	27,980	2,158	<b>7.71</b>	<b>46.30</b>
2	이란	14,991	853	5.69	18.33
3	중국	80,881	3,226	3.99	5.81
4	영국	1,547	55	3.56	2.33
5	스페인	9,191	309	3.36	19.67
6	일본	824	24	2.91	0.65
7	프랑스	6,633	148	2.23	9.90
8	미국	4,464	78	1.75	1.36
9	네덜란드	1,413	24	1.70	8.20
10	스위스	2,200	13	0.59	25.83
	한국	8,320	81	0.97	16.1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6.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7.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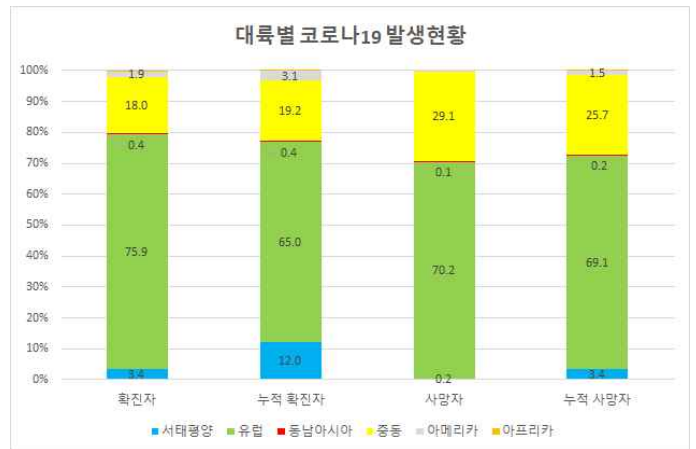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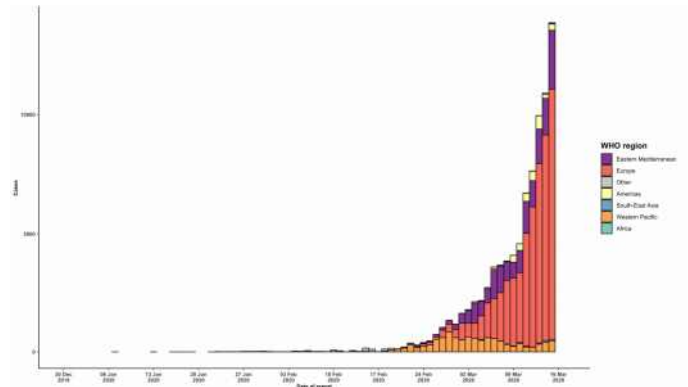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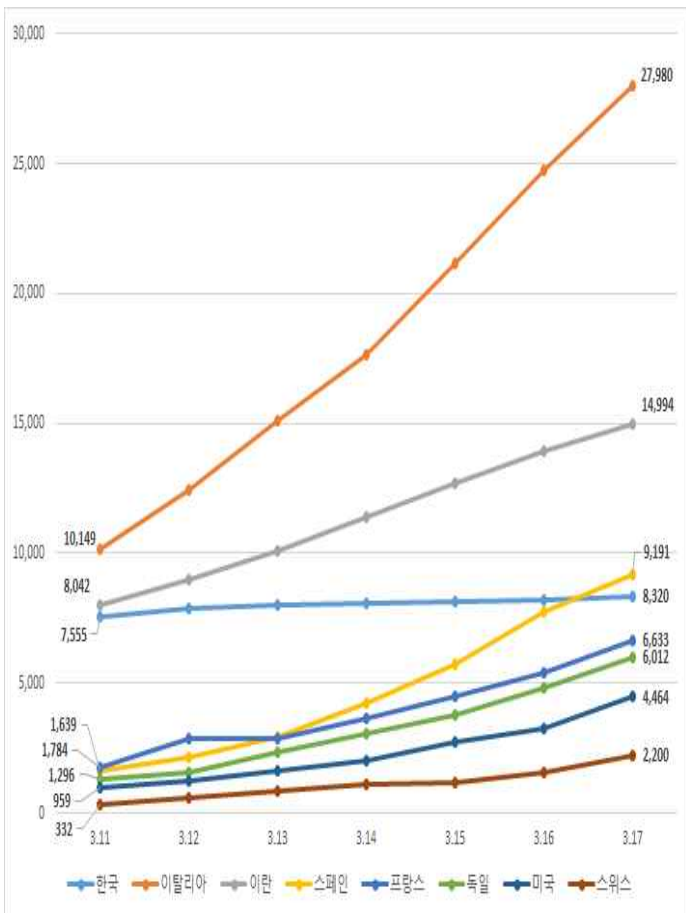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16.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86,434명(전일 대비 13,965명 추가, 19.3%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3,388명(전일 대비 84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3.92%(전일 3.49%)확인됨.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3.11	3.12	3.13	3.14	3.15	3.16	3.17	
이탈리아	10,149	12,462	15,113	17,660	21,157	24,747	27,980	2,158
이란	8,042	9,000	10,075	11,364	12,729	13,938	14,994	853
스페인	1,639	2,140	2,965	4,231	5,753	7,753	9,191	309
프랑스	1,784	2,281	2,876	3,661	4,499	5,423	6,633	148
독일	1,296	1,567	2,369	3,062	3,795	4,838	6,012	13
미국	959	1,220	1,663	2,034	2,726	3,244	4,464	78
스위스	332	613	858	1,125	1,189	1,563	2,200	13
중국가수	103	107	110	114	123	130	137	
총환자수	109,915	116,3087	125,234	134,405	144,283	156,296	170,177	
총사망자수	4,224	4,548	4,884	5,316	5,665	6,388	6,990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16.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881명(전일 대비 21명 추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3,226명 (전일 대비 13명 추가)으로 치명률 3.99%로 확인됨.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7.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16.(월) 9시 기준	80,860	3,213
3.17.(화) 9시 기준	80,881	3,226
증감	21	13

✓ Clinical course and risk factors for mortality of adult inpatients with COVID-19 in Wuhan, Chin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F. Zhou et al.,  
March 9, 2020  
THE LANCET

**배경**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음.

환자의 역학적 특성이나 임상적 특성은 보고되어 있지만 사망률 및 임상경과에 대한 위험요소는 설명되어 있지 않음.

**연구방법**

2020년 1월 31일까지 퇴원했거나 사망한 성인입원환자를 조사함.

인구학적, 임상적, 치료적, 혈액검사 자료를 확인함.

**결과**

191명의 환자(진입탄병원 135명, 무한 호흡기병원 56명)를 대상으로 조사함.

191명 중 137명이 퇴원하였고 54명이 사망함.

91명(48%)의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고혈압(58명, 30%)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36명, 19%), 관상동맥 질환(15명, 8%)의 순이었음.

고령, 높은 SOFA score, 1 µg/mL 보다 높은 d-dimer 혈중농도가 사망할 확률이 증가함.

\*SOFA score : Sequential (Sepsis associ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도구

(호흡수, 의식변화, 수축기 혈압, PaO<sub>2</sub>/FiO<sub>2</sub>비, GCS점수, 평균 동맥압, 승압제 종류 및 주입속도, 혈청 크레아티닌 또는 소변량, 빌리루빈, 혈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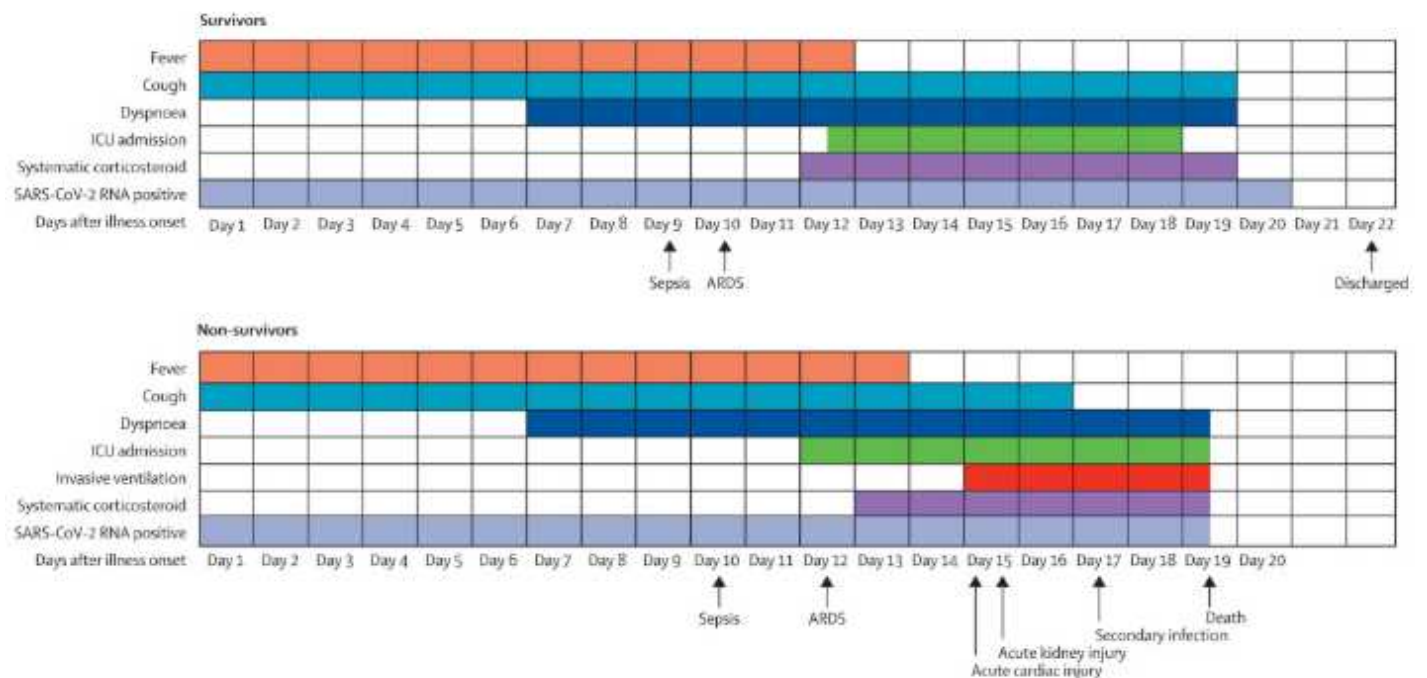
\*d-dimer : 혈전증 진단 방법, 파종성혈관내응고(DIC) 진단의 보조적인 검사로도 사용됨.

바이러스 지속기간은 퇴원자는 평균 20일이었고 사망자는 사망할 때 까지 감지할 수 있었음.

바이러스가 가장 길게 지속된 기간은 37일이었음.

**해석**

고령, SOFA 점수, 1 µg/mL 보다 높은 d-dimer 혈중농도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확인됨.



## 2. 정책 동향

###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마스크 제작, 의료진 물품후원... '코로나19 극복' 서울 마을공동체도 동참

-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제작나눔, 의료진 물품 후원, 지역 사회 소독·방역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영등포구 마을예술창작소 '세바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주민들이 천마스크 만들기 자발적으로 동참, 1,000개 이상을 제작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함

- 금천구, 은평구, 양천구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스크 제작·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음

\* 금천구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지원 활동가, 마을공동체사업지기, 지역주민 40여명이 모여 면 마스크를 수제작해 대구시와 금천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

\* 은평구는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실천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 마을넷 중심으로 마을곳곳에서 1,0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전달함

\* 양천구는 '힘내라 양천!' 캠페인을 통해 13개 마을공동체 모임이 6,000개 면마스크 제작에 참여함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스크 제작 모습



노원구 공동체공간운영협의회 물품전달

-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위한 물품과 간식, 후원금을 보내는 활동에도 나서고 있음

\*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대구 의료진 100명이 입을 수 있는 속옷과 양말세트를 보냄

\* (사)중랑마을넷과 은평구마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후원금과 간식 등 각종 물품을 전달함

\* 자치구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 연합 일동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은 약 700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함

자치구	발송처	발송물품	수신처
중랑구	(사)중랑마을넷	후원금 430만원, 간식	서울의료원 의료진, 중랑구 보건소
노원구	노원구 공동체공간운영협의회	수제청, 빵, 음료, 컵라면 등	노원구 재난안전본부, 상계백병원
은평구	은평구마을종합지원센터	속옷, 양말세트 등	대구의료진

- 아울러,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방역활동도 이뤄지고 있음. 버스 정류장, 어린이집, 상가, 자치회관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방역을 진행 중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마을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 캠페인도 마을공동체네트워킹망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는 각종 설명회와 교육행사, 포럼 등을 대부분 연기·취소하고, 모든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고, 마을넷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 '잠시멈춤' 캠페인 참여를 독려

## ● ‘복지 일선 코로나19 예방’ 서울시,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5만8천매 지원

- 서울시가 3월 17일(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5만 8천매를 지원할 계획임
  -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밀접접촉 방식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가장 우선적인 마스크 제공대상이나, 최근의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 전 국민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듯 취약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도 장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서울시는 공적마스크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장돌봄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4만 8천매를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2월 8일(일)부터 가동함
  - \* 서울시 방역물품대책본부로부터 지원받은 KF94마스크 3만 매, 휴관 중인 노인복지시설 마스크 8천매, 푸드뱅크 마스크 1만 매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그 밖에 덴탈마스크 6만 매를 요양시설에 추가 지원 함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마스크 1만 매를 서울시 방역물품대책본부로부터 지원받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쉽터를 통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배부할 계획임
  - \* 지난 9일(월)부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는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함께 마스크 3천매를 1차로 전달하였고, 이번에 2차로 1만매를 배부할 계획
  - \*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 어르신 식사 및 생활을 일체 수발하는 면대면 케어를 수행하고 있어 돌봄가족과도 접촉이 불가피함
- 서울시는 이번 마스크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감염예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수를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스크 지원 물량을 더욱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 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업장 시민제보 받는다

-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콜센터와 업무환경이 유사한 여론조사·추심대행업체와 칸막이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의류·보석 등 제조업체, 백화점·마트·청소노동자처럼 많은 노동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

### [직원, 시민 누구나 120다산콜과 온라인 응답소로 제보하면 즉각적인 점검 진행]

- 서울시는 점검과 동시에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위험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시민제보(신고)를 받기로 함
  - \*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
-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온라인민원창구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로 제보
  -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제보 할 수 있음
-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빠른 시간 내 방문점검을 실시
  - \* 해당사업장을 방문해 근무 공간 내 노동자 밀집도, 시설방역상태 등을 살피고, 노동자 1인당 휴게공간 및 동시이용 노동자 수 등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집중적 검토
  - \*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시멈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와 정부의 지원 정책도 꼼꼼하게 안내할 계획
- 현장점검 결과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환경개선컨설팅 실시
  - \* 사업장 내 코로나관련 노동자 발생동향 파악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작업장 내 청결유지, 노동자방문객 대상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
- 이와 함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절차도 대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

## [코로나19로 불이익 받고 있는 노동자 개인별 구제 및 심리상담도 진행 중]

- 서울시는 무급휴직 강요,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책반도 운영하고 있음
  - \* 피해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
  - \* 일차로 '시민명예노동옹부즈만(50명)'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
  - \*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진정·청구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법률상담도 진행
-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전화02-722-2525)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음

## ● 서울시, 신천지교 서울내 2개 지파 본부 종합행정조사 실시

- 서울시는 3월17일(화) 14시에 강서구 화곡동과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의 2개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동시에 벌인다고 밝힘
- 이번 행정조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관련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확보하는데 있음
  - \* 신천지 측이 이미 제출한 신도명단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 효과적인 방역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임
  - \* 예를 들면, 처음엔 신도명단만 제출했다가 나중에야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116명은 소재가 불명하여 아직도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
  - \* 시설도 당초 170개를 제출받았으나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고 계속 확인 중에 있음
- 행정조사 대상인 ▲바돌로메 지파는 서울 화곡동 시온교회를 본부로 하고 부천교회, 김포교회, 광명교회를 관할하며 서울에만 2,000여명의 신도가 있으며, ▲서울야고보 지파는 서울 중계동 서울교회를 본부로 하고 동대문교회, 구리시온교회, 포천교회 등을 관할하며 서울내 신도 수가 12,000여명으로 서울경기의 4대 지파 중 가장 많음
-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문화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40명이 투입되며, 신천지 측은 지파장과 총무, 주요 부장 등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힘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천지 예수교의 신도 및 시설과 각종 활동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2주 연장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힘

- \*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 높음
- \*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함

※ 현재 어린이집 현원 대비 23.2% 긴급보육 이용 중(3.16. 현재)으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속 상승 중  
10.0%(2.27.) → 11.6%(3.4.) → 17.5%(3.9.) → 19.7%(3.12.) → 23.2%(3.16.)

-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게 됨

※ (이용 관련 사항)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종일보육(7:30~19:30)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 \*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함
-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함
- \* 또한,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함
-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65.6억 원, 국비+지방비) 기 지원

※ (방역관리)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긴급보육 회피 등 신고)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신고 대상

-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함
-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함

- \*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전체 입국자 13,350명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현행	확대 (3. 19. 0시부터 적용)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 (입국자 검역결과) 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발생
-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됨
  - \*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함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
  - \*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함
-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 특히, 여럿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관련하여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

### ●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임
  - \* 관세청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마스크 전달식('20. 3. 16.(월), 14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음
  - \* 관세청은 압수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여섯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홍콩과 싱가포르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3월 17일 기준 중국과 육로교통으로 연결된 홍콩(740만 인구)은 확진자 157명 사망자 4명이며 싱가포르는(560만 인구) 243명이 확진되었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적고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두 나라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1. 유입차단 및 검역 (홍콩)** 우한지역을 방문한 홍콩대 연구팀은(1.21.) 초기대응과 방역체계가 미흡함을 확인한 뒤, 사스의 10배 규모가 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후 홍콩과 중국 우한을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한 대상이 코로나 19에 확진되며(1.23.) 홍콩정부는 우선적으로 중국 본토 고속철도, 페리의 운항을 중단하고, 중국-홍콩 등 4곳의 출입국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지역인 한국, 이탈리아, 이란지역의 해외여행을 제한/금지하였고,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14일 이내 중국 방문 후 제3국 경유자 포함),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한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택 또는 숙소, 격리시설 등에 의무격리를,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의 경우 정부시설에 격리조치를 단행하였다. **(싱가포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빨리 후베이성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본토, 한국(대구, 청도), 이탈리아, 이란 등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며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노동허가증을 지닌 중국인이 여행제한 조치로 싱가포르 미 귀국 시 의무휴가(5일)를 제공하고, 중국에서 귀국하지 못한 시민, 영주권자, 장기체류자가 입국할 경우 14일의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다.

**2. 감염병 대응체제와 예방적 조치: (홍콩)** 우한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고 확산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1.25.) 전염병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인 긴급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모든 출입국자 대상 체온측정, 경유지 정보 신고, 공무원의 재택근무 실시 및 민간기업에 권고, 공공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은 무기한 폐쇄와 휴교조치를 하였다. **(싱가포르)** 보건, 기업, 교육, 노동, 환경 등 범정부 TF를 조직하였고,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연계되지 않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응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였다(2.7.). 이에 따라 경증은 일반의사 진료 후 자가격리를, 고령층, 유아 및 합병증 환자 등 취약계층은 대형병원으로 내원하도록 전략을 수정하였다. 또한 대규모 행사 등은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체온측정, 중국 출입국여부,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일 2회 발열체크를 하고, 38도 이상인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였고 병원의 방문객 수를 2명으로 제한, 학교와 복지시설의 단체활동 중단, 소규모 활동 권고, 방문객 숫자 제한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하였다.

**3. 조기발견과 감시강화: (홍콩)** 응급실 환자, 증상이 경미한 외래환자까지 코로나19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공립병원에 외국인 여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시보드를 운영하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시설의 위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개의 격리시설을 운영하였다. 격리검역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구금 또는 25,000 홍콩달러(한화 380만원) 벌금이, 2차 위반 시에는 전자팔찌 부착, 3차 위반 시에서는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입소조치 하였다. **(싱가포르)** 모든 폐렴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포함하여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병원비 정부부담, 근로자 의무휴가로 인한 손실을(고용주에게 1인당 100달러/일) 보장하며 조기검사를 촉구하였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내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격리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대학 기숙사, 휴양시설 등 정부 격리시설을 지정하였다.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박탈 또는 기소하고, 거짓으로 동선을 보고할 경우 벌금 최대 10,000싱달러(한화 868만원) 또는 6개월 징역 부과하였다.

**4. 그 외 주요조치: (홍콩)**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스의 경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인위생 관리과 마스크 착용을 실시하였고, 재택근무 또는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 초중고 및 대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마스크 무료 배포, 사재기에 대응하며 (1인당 구매 수 제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개인위생 실천을 강조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감염병의 경험을 교훈삼아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촘촘한 감시체계와 방역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홍콩과 싱가포르의 4가지 이상의 주요한 정책적 전략에 주목하여 향후 감염병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싱가포르 보건부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2.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긴급안전여행공지 6보~18보(<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3. 홍콩 위생보호센터(CHP) 홈페이지(<https://www.chp.gov.hk/en/index.html>)
4. New.gov.hk(2020) Disease contingency plan set 외 1월 4일자, 1월 25일자, 2월 26일자 보도
5. 주홍콩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각 일자별 공지사항(1.23~3.16)
6.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why did Singapore have more cases than Hong Kong - until now? 외 2월 11일자, 2월 25일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

#### 01.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전망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질병에 대한 대비를 차분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02. 미래 질병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

- 미래 질병은 먼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건강 이슈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새로운 질병(emerging diseases)’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처음으로 발생한 새로운 질병뿐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발생률, 지역적 분포가 점차 증가하는 질병을 포함함(Mackenzie, 2011)
- WHO는 건강 위협 요인으로 감염병과 비감염병 모두를 지적했음을 주목해야 함
  - 2019년에 WHO가 발표한 10대 건강 위협 요인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비감염성질환, 인플루엔자 국제적 유행, 취약한 환경, 항균제 내성, 에볼라 및 고위험성 병원균, 일차보건의료 취약성, 예방접종 거부, 뎅기열, HIV임(World Health Organization, n.d.)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 2017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33.6%(약 1730만 명)를 차지하며, 만성질환 진료비(28조 2000억 원)는 전체 의료비(69조 원)의 41%를 차지함(보건복지부 외, 2019)
  - 국내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자들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보건복지부, 2020), 고령자 및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임상적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이 지적됨(국립중앙의료원, 2020)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협이 어디에서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보건정책 과제에 대비하고 있음
  - CDC가 말하는 새로운 보건정책 문제에는 식품 및 의약품 생산, 여행으로 인한 해외 이동,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는 기상현상, 지속적인 인구 증가,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곳곳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행,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음(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d.).
  - CDC의 감시·역학·실험 서비스 센터(CSELS: Center fo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Laboratory Services)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와 지카바이러스를 신종 건강 위협(emerging health threats)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 또한 CDC는 2019~2021 국제보건전략(Global health strategy)에 중요한 건강 영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함
    -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폐렴연쇄상구균 등 질병 부담이 높은 질병의 이환 및 사망, 그리고 폴리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등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의 종식을 우선순위 건강영향으로 설정함
    - \* 이와 같은 질병의 발생과 위협 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공중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CDC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d.)
- 영국은 지방정부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공중보건청(PHE: Public Health England)을 설립하여 전 국가적 건강 위협, 감염병, 환경 위해 요인에 대응하고 있음
  - PHE는 중앙정부(보건부)의 집행 기관으로서 보건부에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함
    - \* 조직의 인력 중에는 감염병 대응 인력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고, 만성질환·재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하여 관심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주효진 외, 2018)

- PHE는 국민 건강 증진, 공정한 사회 실현, 공공안전보호, 공중보건체계 강화라는 4개 목표하에 우선적인 보건정책 전략 10가지를 추진하고 있음(Public Health England, 2019)

영국 공중보건청(PHE)의 우선순위 보건정책 전략



\*출처: Public Health England. (2019). PHE Strategy 2020-2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30105/PHE\\_Strategy\\_\\_2020-25\\_\\_Executive\\_Summary.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30105/PHE_Strategy__2020-25__Executive_Summary.pdf)에서 2020. 3. 2. 인출.

03. 미래 질병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의 주요 여건 변화

- 국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미래 질병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필요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가속,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행,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부문의 건강 피해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의로 분야 대응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다가올 위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국내 여건 변화	주요 내용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명)이 2007년 1.259명에서 2018년 0.977명으로 감소</li> </ul> </li> <li>- 아동, 청소년 정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장려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감소에 초점</li> </ul> </li> <li>-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보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노인 자살률,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일차의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요구 증가</li> <li>· 생애말기 케어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관심 증가</li> </ul> </li> </ul>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발생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이후 대상 감염병이 80종에서 86종으로 확대</li> <li>·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발생 및 심각한 파급 효과</li> </ul> </li> <li>- 감염병 대응, 대비에 대한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미래 감염병 대비 관련 과제가 존재</li> </ul> </li> </ul>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부문의 건강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후 환경 변화의 가속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온 극한현상이 발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li> </ul> </li> <li>-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축적</li>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2018년)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2019년)으로 포함</li> <li>·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 의무화(2017년)</li> </ul> </li> </ul>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의로 분야 대응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로봇공학 등이 빠르게 확장</li> </ul> </li> <li>- 보건의로 분야의 미래 기술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효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li>-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근로 형태 발생,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기술 발달에 따른 위해 물질발생 등 새로운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li> </ul>

04.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의 방향

- 현안 중심의 정책 과제 발굴을 탈피하고 공중보건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비전과 목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눈앞에 처한 문제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미래의 새로운 건강 위협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 대비 역량을 갖추기 어려움

- 정책 당국, 전문가, 국민이 공감하는 보건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한계를 점검하여, 미래 질병 이슈를 발굴하고 전략을 설계해야 함
-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질병 문제는 보건 당국뿐 아니라 경제, 외교,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협력을 요하는 것과 같이 미래 질병 대응에는 보건정책뿐 아니라 다부처 협력과 융·복합 전략이 필요함
  - 최근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 부서에서는 공중보건정책의 우선순위 비전으로서 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리더십과 다부처 협력 강화를 제안함
    - \*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부문 간 정책의 경계가 약화되어야 하며, 중요한 공중보건 어젠다에 대해 보건의로 실무자들 간에 빈번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함
  - 또한 이 비전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목된 것은 건강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임
    - \* 국가 전체 차원에서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어젠다가 들어오기 어려우며, 시급한 문제 중심으로 대응하여 미래 준비가 불가능한 현실이 지적됨

### 공중보건정책의 비전과 실현의 장애요인



\*자료: 채수미, 윤강재, 서제희, 탁상우, 최지희, 이나경. (2019). 미래질병과 건강 아젠다 발굴 및 대응 방안 연구.

- 공중보건정책의 비전을 세우고 미래 질병 어젠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역할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모든 정책에서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산, 분석, 연구하여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와 지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필요함

## COVID-19 : a potential public health problem for homeless populations

### 코로나19 : 노숙자 집단에 발생 가능한 공공의료 문제

Jack Tsai, Michal Wilson

#### ○ 대도시 내 노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노숙자들에게 확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모든 대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지난 10년 간 하루 평균 50만 명의 노숙자가 보고되었고, 캐나다는 2016년 하루 평균 3만 5천 명의 노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노숙자들은 보호시설, 중간거주시설 비공식적으로는 길거리 및 버려진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함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노숙자들에 전파 시 보호시설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정신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감염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 노숙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움

- 노숙자들이 도시 내 이동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추가 감염자들의 격리 및 치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최근 코로나19가 구강-대변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대다수의 미국 도시들에서는 많은 수의 노숙자인구의 공공장소 배설문제가 보고되고 있어 감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노숙자를 통한 코로나19 전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 노숙자집단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능한 보호 조치 실행 필요

- 노숙자 보호시설 내 검사키트를 공급하고 기존 노숙자 보호기관에게 코로나19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노숙자들의 코로나19 격리시설 및 치료시설을 별도 공급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준비해야 함

#### ○ 하지만 여전히 국가 코로나19 정책에서 노숙자들이 소외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다수 사회 정책들은 노숙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음. 공공 장소 폐쇄, 시설 밖 이동 제한, 교통 제한 등의 조치들은 노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임. 심한 상황에서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폐쇄될 가능성도 존재함
- 최근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노숙자 쉼터로 건축하였던 시설을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시설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조치들은 노숙자들의 정신적 공포 및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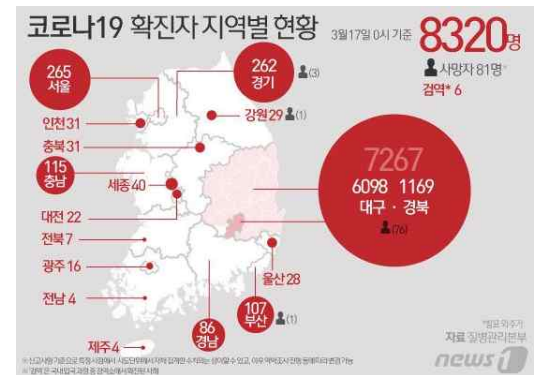
#### ○ 결론: 세계 대도시 내 노숙자 문제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선제적인 조치 필요

### 3. 주요 뉴스

#### 발생·치료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대구 첫 환자 한달만에 역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구·경북 지역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4명 늘어난 8320명이 됐다. 이 중 대구·경북 지역은 37명이 늘어 7267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외 지역은 47명이 늘어 1053명이 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4300명이 넘는 대구 신천지 교인 확진자를 격리하면서 급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소규모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75945>)

●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2명 추가...모두 13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추가돼 13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은 수도권 내 최대 감염 사례다. 이중 콜센터 직원은 88명이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46명이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코로나19 확진자의 직장이 이 콜센터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콜센터 직원 다수가 확진자로 판정됐고, 이들이 다닌 교회 등에서도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713215222078>)

● 16일 코로나19 완치자 264명 증가...완치율 16.8%

지난 16일 하루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 수가 264명 증가했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 환자는 84명 늘었지만, 닷새째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완치자 수도 닷새 내내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추가 완치자가 늘어나면서 이날 기준 완치율은 16.8%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13.8%에서 3%포인트 올랐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7\\_0000958430&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7_0000958430&cID=10201&pID=10200))

● **문대통령 "수도권 집단감염시 모든 노력 원점...방역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인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평가하면서도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강화 ▲ 확진자 정보·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정보 공유 ▲ 교통망 방역체계 및 영상촬영 협조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6125551001>)

● **유치원·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또 연기...대입일정은 더 검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 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루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일정과 방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7085351004?input=1195m>)

● **코로나19 방역·확진자 치료 따른 의료기관 손실 지원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 지급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용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은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한편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인력을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http://m.ra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049>)



● **문 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1101001&code=9102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1101001&code=910203))

● **박원순, "서울지역 코로나19 병상 이상무"..생활치료시설 1800병상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음압병상은 809개 병상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은 27% 정도이며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태능선수촌에 300호실을 확보했으며, 2단계로 관광비즈니스 호텔 1500개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3단계로 연수원 전면개방도 준비중이다. 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방역관리, 근무환경개선, 예방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약 99%에 달하는 523개 업체가 이미 방역을 마쳤고 약 20%에 달하는 101개의 업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228248970>)



● **‘한국형 방역 모델’ 전세계와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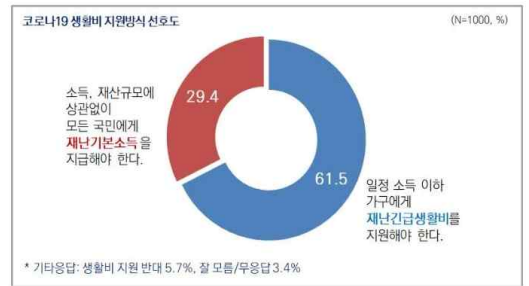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나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형 방역 모델’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캐나다의 제안으로 한국과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6개국 외교 장관이 15일 밤 70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간 전화협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자동차를 탄 채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승차 검진),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진단 등 한국식 방역 모델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또 15일 영국 공영 <비비시>(BBC) 방송에 나와 코로나19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진료를 신속히 해온 것이 낮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과 접근법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는 데에도 더 나은 국제적 협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32831.html>)

● **서울시민 71.4%, 박원순 시장 제안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찬성**

서울시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2~13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를 진행했다.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2개월간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활비 지원 방식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29.4%)보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61.5%)을 더 선호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071100004?input=1195m>)

● **최악 위기 자영업-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논란...지원 대상·재원이 문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과 취약계층에게 일정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시가 처음으로 취약계층에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자체·여당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긴급 재난생활비나 재난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결국 문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선정과 재원 확보 문제로 집약된다. 이미 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상당부분 추가 반영했다. 기존에 지원해온 각종 수당과 이번의 소비쿠폰을 연계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선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의 전례를 만들 수 있다. 진지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셈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7000123>)

● **CNN “코로나19 사망률, 이탈리아는 높고 한국은 낮은 이유”**

미 CNN이 한국의 높은 검사 비율을 언급, 전염 위험과 치사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검사와 전염 상황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검사율이 곧 감염 이후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CNN은 주요 발병국인 한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8일 기준 인구 백 만명당 3692명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검사율이 1%에 못미치는 낮은 사망률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기준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을 웃돈 이탈리아의 경우 검사율이 백 만명당 826명 수준이다. CNN은 이렇다할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증상자 및 확진자들에 대한 효과적 치료와 함께 빠르게 확진자를 선별함으로써 감염 노출을 줄이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7000237>)

● [팩트체크] 소독제 분사방식,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일까?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제독차와 분무기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소독제 살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일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분사방식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 자체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로 5.25%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1대49' 비율로 물에 희석한 소독제가 분사방식 방역에 쓰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소독제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해해 감염력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바이러스가 길거리 곳곳에 묻어 있다면 소독제로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방역 방법이다. 제독차와 분무기 등을 통해 소독제를 무차별 살포하는 방식은 비말(침방울)과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쌓인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퍼뜨려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방역지침은 '바닥이나 표면은 분사가 아닌 소독제가 묻은 걸레나 천으로 반복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어 '소독제로 닦아내고 15~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닦아 내야 하고,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1:4' 비율로 물에 희석한 소독제로 닦아내고 10분간 방치한 후 물로 닦아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6129000502>)

● 최고의 방역에 빈곤한 대책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가히 '방역 다양성(Variety of Disinfection, VoD)'이라고 부를 만한 차이를 보였다. 처음에 서방 언론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기민하게 최초의 확진자를 발표(1월10일, 30대 중국인)하고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작동시킨 한국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홍콩, 싱가포르의 처음부터 아주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놀랍게도 대만에서는 15일 현재 겨우 확진자 59명만 나타났을 뿐이다. 홍콩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대대적 검사와 동선 추적이라는 적극적 통제(containment) 정책을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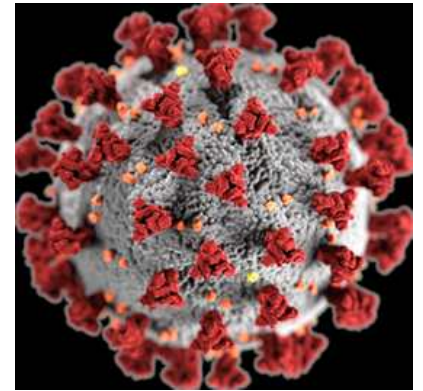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훨씬 우수한 의료체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유럽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술이 아닌 의료자원(특히 병상과 의료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유럽의 오랜 긴축 재정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 의료시설 축소에 앞장섰던 칭가레티는 이탈리아 정치인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되었다. 브렉시트의 주역, 영국의 존슨 총리는 '지연(delay) 전략'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통제를 포기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오는 11월3일 대선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으로 치부하다가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급여세(payroll tax) 전원 면제 같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유럽과 달리 민간 의료체계를 지닌 미국이 과연 동아시아와 같은 적극적 통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방역은 전쟁을 닮았다. 전장에서서는 시장에서처럼 시행착오의 실험을 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능력(동원)이 전략의 성패를 결정한다. 전장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포연(불확실성)으로 가득한데 정부의 병참계획은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시국"의 "전례없는 대책"을 강조했다지만 그의 정책실장은 단기재정정책의 원칙으로 "적시성, 특정성, 한시성"을 내세워, 예컨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긴급 대책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책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비상시국의 적시성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특정성은 해당 사항이 없다. 금융 전공의 김상조 실장은 왜 바이러스 감염병엔 보험이 성립되지 않는지 잘 알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영구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딱 한번의 지급을 주장했으니 한시성도 100% 충족시킨다(그래서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다). 그의 '원칙'이 관철된 긴급 추경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재판이다. 3년 동안, 아니 세 정권 내내 효과를 보지 못한 기재부의 정책이 "전례 없는 대책"으로 둔갑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방역에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대책이 결합되었다.(정태인 독립연구사·경제학)

출처 : 경향신문(<https://news.v.daum.net/v/20200316204855839>)

### ● 코로나19 백신, 사람 대상 첫 실험…빠르면 1년내 상용화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첫 실험에 들어갔다. 미국 시애틀의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소는 16일 45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투여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백신 실험의 목적은 백신이 우려스러운 부작용을 보이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이 백신 주사로 감염될 우려는 없다. 백신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백신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복제된 무해한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이 백신이 작용하는지를 알려면 몇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실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백신 상용화에는 1년이나 1년반이 걸릴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시 국립보건연구소의 국립알러지면역질병연구소 연구원이 밝혔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888.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888.html))



### 국제현황

### ● UK coronavirus crisis 'to last until spring 2021 and could see 7.9m hospitalised'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내년 봄까지 지속 될 예정이며 790만명이 입원 할 수 있다고, NHS 고위 공직자 내부 브리핑에서 PHE(Public Health England)는 밝혔다. 가디언이 확인 한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향후 12개월 이상 더 지속 될 것이고, 이미 과부화 된 NHS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보건 의료 상임 자문위원인 Chris Whitty 교수는 '영국의 약 80% 인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 가정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예상으로, 실제 감염수치는 그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는 인구 5분의 4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2개월동안 인구의 80%가 COVID-19에 감염될 것이고, 이중 15%(7.9백만명)가 입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신종감염질환이 공공보건의료와 NHS, 경찰, 소방 및 운송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 직종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최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가 예측 한 것처럼 치사율 1%라면 531,100명이 사망 할 것이고, Whitty 교수의 주장처럼 0.6%라면 318,660명이 사망 할 것이다. Whitty 교수는 영국과 전세계 추이를 봤을 때 감염자수는 향후 10에서 14주 사이에 빠르게 증가 할 것이며, 5월에서 6월 중순이 감염질환의 정점이 될 것이고, 이후 10주 이상 동안 감소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함께 다시 재유행 가능성 있으며, 백신 개발 전까지 보건 의료 당국이 국민을 보호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 The Guardian(<https://news.v.daum.net/v/20200316204855839>)

● WHO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 시대 세계 보건 위기"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가리켜 "우리 시대 본질적인 의미의 세계 보건 위기"라고 우려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인간성(humanity)의 최고와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휴교령과 스포츠 행사 및 모임 취소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의 중추인 진단과 격리, 접촉자 추적이 충분하게 확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19 전염의 사슬을 끊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진단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의심 환자를 진단하고, 만일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까지 누구와 가까이 접촉했는지 찾아 그들도 진단 해라"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7003051088>)



● "美, 한국 되고 싶지만 이탈리아 될 우려" 보건당국자 고백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처럼 질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미 공중보건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16일(현지 시간)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는 2주 전 이탈리아와 같다"면서 "지금 미국은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정을 보면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기 등 기본적인 공중 보건 조치를 한다는 우리는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 여러 나라의 모델을 연구해왔다"며 "그 모델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델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사람들 그룹에 가지 않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32051>)

#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b>총합</b>	<b>67</b>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17.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6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9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0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4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8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1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2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33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34	송파구	한솔병원	외래진료	02-2147-6000
35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6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7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8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39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40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41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4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43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4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5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6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47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8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49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50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51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52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5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54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55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b>총합</b>	<b>22개 자치구</b>	<b>55개소</b>	<b>외래 31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b>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4)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고려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새우리남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우리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4)	기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직접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7)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광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서대구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참조은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W병원
광주(5)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3)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척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월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손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월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제이에스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8)	강릉고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성지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10)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남(13)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5)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바른유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9)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직접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개시도 268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7)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 [붙임4]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8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9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0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1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2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3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4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5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6	송파구	재단법인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7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8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9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안지병원*	02-1877-8875	50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1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2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3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4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5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6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7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8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2	금천구	희망병원	02-2219-7231	59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3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4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1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5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2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6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3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7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4	종로구	서울자구병원	02-397-2018
28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5	종로구	서울직업자병원	02-2002-8650
29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6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7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1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68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2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9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0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4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1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5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2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6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3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7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4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17)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